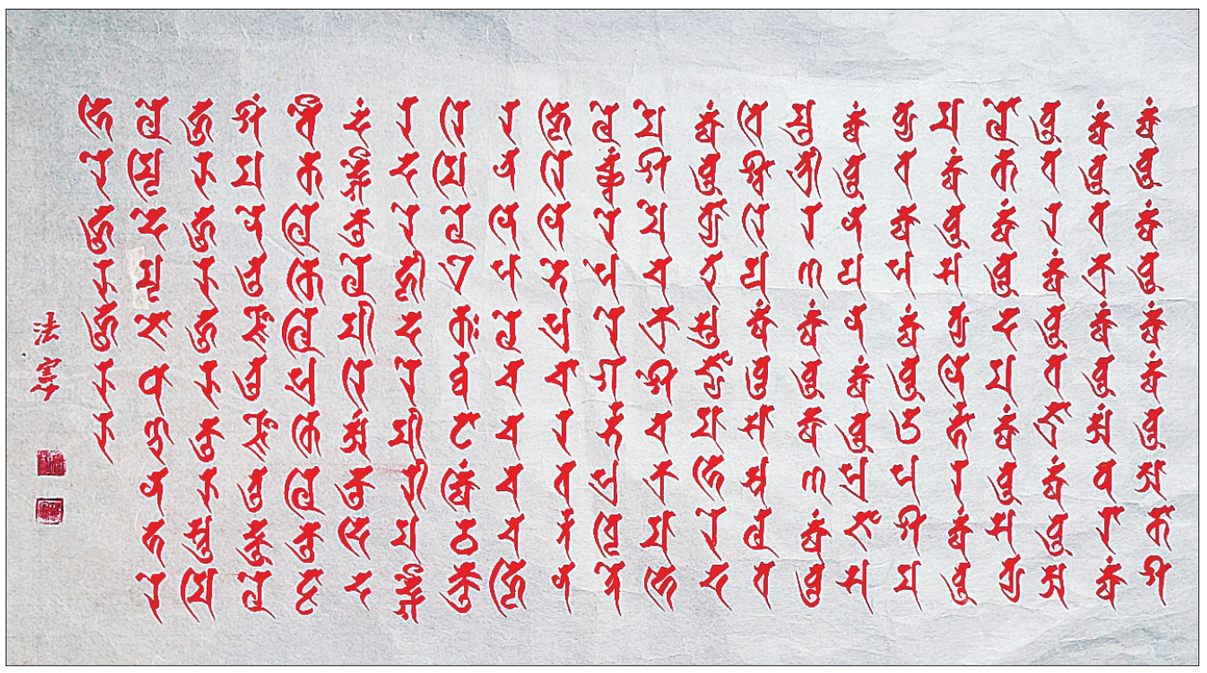
부처님 말씀 원음에 다가가는 '실담범자' 사경

'실담범자 진언 · 다라니 · 만다라' 展
7월 13~19일 서울 한국미술관 3층

법헌 스님과 제자 10여 명 참여해
실담자 진언 등 작품 50여 점 전시
수익금 우크라이나 희생자돕기 성금
"실담범자 가치 의미 알리는 기회로"


법헌 스님 作, 츰부다라니


법헌 스님 作, 성여의륜근본다라니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부처님 말씀을 실담범자로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한국실담범자협회(회장 법헌)는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 3층에서 '실담범자 진언 · 다라니 · 만다라' 전을 개최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언, 다라니, 주(呪)의 음가와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이번 전시는 20여 년 동안 실담범자를 연구해온 법헌 스님과 그의 제자 10여 명이 참여해 실담범자 진언, 다라니, 만다라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수익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 돕기 성금으로 회향할 예정이다.

7월 13일 개막식(오전 10시)에서는 실담범자 삼밀수행의 하나인 '무드라 명상' 시연과 '실담범자'의 음가를 그대로 재현한 '실담범자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또한 오후 12시에는 보신각으로 이동해 '범종타종식'을 통해 경전에 기록상으로만 그 의미를 갖고 있던 진언과 수인의 삼밀가지 불은을 온 세상에 회향하는 시간을 갖는다.

실담범자는 범어를 표기하는 인도 고전 문자 중 하나로, 불교 경전과 함께 중국에 전해지면서 실담범자라 불리게 됐다. 한국 · 중국 · 일본 등의 동아시아에서 주로 의식, 진언 등에 쓰이고 있으며, 당시의 원형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이렇게 실담범자로 전해지는 진언 · 다라니는 예로부터 오종불번(五種不翻), 즉 그 의미를 번역하지 않는 다섯 가지 중의 하나로 여겨 번역하지 않았다. 범어는 고대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를 지칭하는 한자어로, 범천이 만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0여 년 전부터 실담범자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게 된 법헌 스님은 불자들에게 좀 더 정확한 부처님 말씀을 전하겠다는 원력으로 실담범자 연구를 시작했다. 스님은 많은 대중에게 실담범자를 전하고자 이번 전시에 맞춰 한국실담자협회를 창단한다. 이번 전시는 협회 창단 준비 작업의 일환이다.

진언은 '거룩하고 참된 말'이라는 뜻으로 산스크리트어 만트라를 번역한 것이다. 주(呪), 신주(神呪)라고도 번역한다. 진언을 다라니라고도 하는데, 다라니는 '모든 선함을 기억하여 지니고, 모든 악함을 일어나지 않게 막는다'는 의미로 총지, 능지, 능차로 번역하기도 한다.

불교에서 진언은 수행의 한 방편으로 매우 중요시했는데, 진언을 반복해서 외우거나, 진언 자체를 관하는 명상을 하거나, 정성껏 받아쓰는 등의 수행을 통해 물질적 · 정신적 장애들을 극복하며,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얻어 궁극에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았다. 진언수행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이를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다. 외우는 방법에는 입으로 외우는 방법과 이를 정성껏 받아쓰며 외우는 방법이 있다. 다만 진언 사경은 입으로 외우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이 다르다. 그만큼 사경은 입으로 외우는 것보다 정성과 노력을 더 필요로 하는 수행인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경전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경전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상징하고 있다. 진리 자체는 문자로 나타낼 수 없지만 문자를 떠나서도 진리를 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경전에 쓰인 문자는 부처님이 중생들을 진리로 인도하려는 자비심의 상징이기도 하다. 사경을 통해 대중은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차분하게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 사경하는 행위 그 자체가 훌륭한 수행인 것이다. 그래서 옛 수행자들은 자신의 피로 사경을 하기도 하고, 한 글자를 쓸 때마다 삼배의 예를 올리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맑히는 훌륭한 수행이자, 스스로의 정성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룩한 불사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좀 더 정확히 해석하고 알아가는 일은 부처님 말씀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것으로, 부처님 말씀의 원음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실담범자의 연구는 더불어 중요한 불사라고 할 수 있다.

법헌 스님은 "〈반야심경〉 등 실담범자 범어본이 남아있는 경전들은 한역이 아닌 범어본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전시가 좀 더 많은 대중에게 실담범자의 존재와 그 가치 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실담범자를 통한 새로운 포교로 많은 대중이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시의 의미를 밝혔다.

법헌 스님은 1944년에 태어났고, 순천 선암사에서 득도했다. 연세대 산업대학원, 동국대 박물관대학원, 한국불교태고종 중앙강원을 수료했다. 실담범자 진언 · 다라니 연구회를 설립(2010년)했으며, 8차례에 걸쳐 실담범자 서화 전시회(2012~19년) 및 국회초청 의원회관 개인전(2014년)을 열었다. 현재 안산 법륜사에 주석하면서 집필 및 실담범자 사경 지도를 하고 있으며, 2020년에 한국 최초로 〈실담범자 반야심경〉을 펴냈다. 문의 (02)720-1161.

2022 이철진의 '월요 승무 이야기'



7월 4일~8월 29일 성균소극장
중요무형문화재 한영숙류 승무
러닝타임 40분 전판 솔로 공연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한영숙류 승무 전판(40분)이 무대에 오른다. 한영숙류 승무를 전승한 춤꾼 이철진이 7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서울 성균소극장에서 '2022 이철진의 월요 승무이야기'를 통해 한영숙류 승무 전판을 선보인다. 〈사진〉

2007년 '보름간의 승무여행'으로 시작한 이철진의 승무 공연은 '30일간의 승무이야기(2009)', '100일 승무이야기(2010, 2016)' 등 장기공연을 이어왔다. 2022년 이철진의 승무이야기는 새롭게 단장해 관객을 맞는다.

이철진은 러닝타임이 40분인 이번 공연을 솔로로 진행한다. 이철진에게도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이번 공연은 이철진이 자신의 무용인생 전부를 건 공연으로, 한국 남성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시작 전에 공연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이 진행될 예정이며, 공연 후에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된다.

이철진은 한국 근대 춤계의 거목인 한성준과 그의 손녀 한영숙의 춤과 예술적 정신을 전수받은 이애주로부터 한영숙류 전통춤 전판을 사사했다. 특히 근래에는 보기 드문 한영숙류만의 전통춤에 매진함으로써 이철진만의 개성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한영숙류 춤을 선보이고 있다.

이철진은 서울예술대를 졸업했고 명지대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런던대학교(2008년) 및 시드니대학교(2010년) 방문 교수, 코스타리카국립대학(2015년) 초빙교수 등 역임한 바 있다. 문의 (02)3675-3336.

박재완 기자

제7회 2022 찬불가 열창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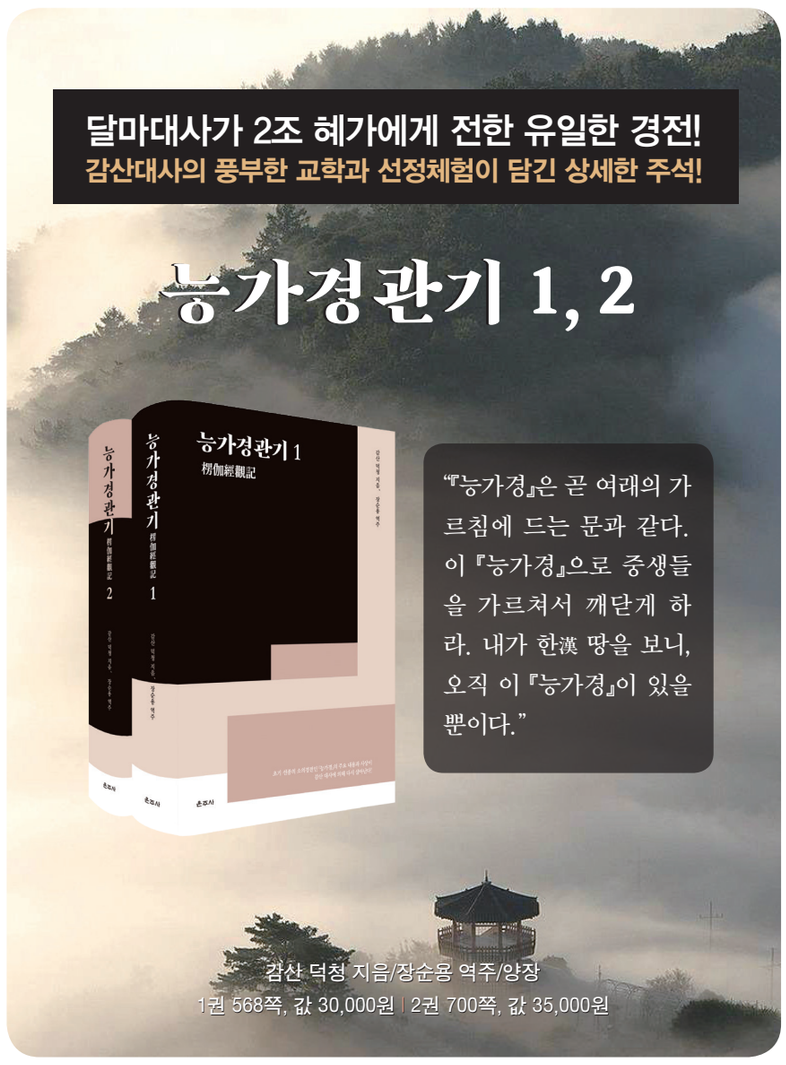
접수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좋은 벗 풍경소리 · 붓다콘서트가 '2022 제7회 찬불가 열창대회'를 개최한다.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동영상을 통한 예선을 치르고 본선은 9월 2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예선 결과 발표는 8월 8일 오후 1시 이후 네이버카페 '붓다콘서트'와 카카오채널 '좋은 벗 풍경소리'를 통해 공지하고, 본선은 현장에서 경연하고 당일 시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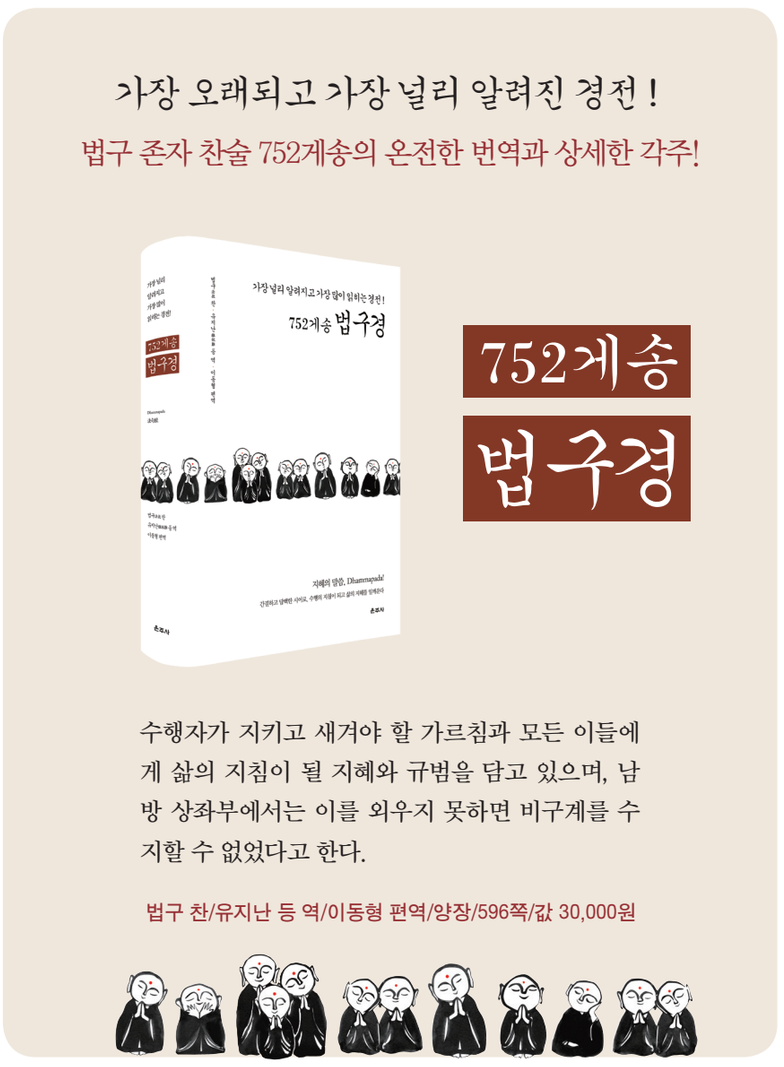
이번 대회에서는 예년보다 대상 수상자(팀)의 상금을 300만 원으로 높였다. 최우수상 1팀에게는 100만 원, 우수상 2팀에게는 각 50만 원, 인기상 2팀에게는 각 20만 원, 응원상 1팀에게는 50만 원, 장려상 3팀에게는 각 1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붓다콘서트 카페(http://cafe.naver.com/buddhaconcert/)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한다. 접수방법은 전화(02-723-9836), 우편(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407호 좋은 벗 풍경소리), 이메일(budsori@naver.com)로 하면 된다. 단 예선 동영상은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일(오후 6시)까지다. 문의(02)723-9836.

박재완 기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